

2018 년 2 월 24 일 “(성경의 큰 숲 보기) 민수기 - 광야에서”(민 14:26-30)

<도입>

민수기의 원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떠나서(민 10:11)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38 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의지와 번번히 위협하는 장애물로 인해 거듭 좌절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민수기 구조.

1. 1~25 장: 1 세대 이야기

- (1) 1~10:10: 인구조사; 진 편성/행군 순서, 성막 이동에 관한 지침
- (2) 10:11~25: 광야생활 – 갈등/반역의 반복, 주변국가와 갈등
- ** 13-14 장: 가나안 정탐과 좌절 → 백성의 분노, 하나님의 용단

2. 26~36 장: 2 세대 이야기

- 인구조사; 율레와 임무; 미디안 승리, 요단 동쪽 정착과 가나안 땅 분배 등

[1] 광야에서 만나는 것

광야로 나설 때 20 세이상 남자는 총 603550 명입니다(1:46).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대행렬을 이루어 출발했습니다(10:11). 그런데 광야 3 일만에 악한 말로 원망이 터집니다(11:1-3). 또한 고기가 없어서(11 장), 아론/미리암은 모세가 못마땅해서(12:2), 가나안 정탐 후 원망 통곡하고(14 장), 고함과 일당이 당을 짓고 반발합니다(16 장) 등...

불평과 원망에 관련된 에피소드들 외에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타민족들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 세대에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은 유감스럽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모두 함께 소망을 갖고 떠났을 텐데 예측불허의 상황들이 닥치자 **비극적인 현실**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의 광야와 동일한 맥락의 삶을 경험하지 않나요? 어느 시대 누구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 14:22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자기도 물위로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기 전에 물위를 걸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물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또한 물위를 걸을 때 바람을 보면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니 무섭습니다. 그래서 빠집니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할 때 예수님이 구하셨습니다. 이로써 상황이 종료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끔찍함, 또 예측하지 못한 횡재/낙관이 범벅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만납니다. 그 때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며,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불안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열린 광야보다 울타리가 쳐진 닫힌 성읍, 끝을 알고 조정가능한 자신의 안전지대를 급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control issue 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정 욕구를 내려놓을 때, 낙관의 여명이 비추어 옵니다.

[2] 광야의 비극적 요소와 희망

Victor Frankl 의 “죽음의 수용소”.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고통과 죽음 속에서 삶의 비극적 요소(스스로 해결 불능)인 고통과 죄와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신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고, 삶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비참함 속에도 삶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음을 아는 것, 또한 부정적인 악하고 악한 것을 긍정적, 건설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삶으로 회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비극 속에 낙관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Frankl 이 언급한 광야 백성의 삶의 고통과 죄와 죽음을 다룹니다. 물과 음식이 없고, 길이 험하고, 부당한 체제 속에 갇혀 있다고 믿는 고통에 죄가 붙습니다. 죄는 불평, 원망, 다툼 등입니다. 그러다가 1 세대 남자는 모두 죽었습니다(여호수아와 갈렙 제외).

그러면 비극적 광야에서 낙관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찾아 보십시오. 11:1, 11:18, 12:2, 14:10, 14:27-28, 16:19, 16:42, 20:13.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셨던 친히 함께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나쁜 말을 듣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듣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풀 수 없는 고통, 죄, 죽음은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희망과 낙관이 없습니다.

1 세대의 광야 죽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질 수 있는 낙관을 배우지 못했다는 반면 교훈입니다. 그러나 광야 2 세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민 26 장 이후와 여호수아서에서 2 세대는 불평과 원망과 반역한다는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1 세대 이후 인구도 줄지 않았습니니다. 인구 계수 결과 601,730 명이었습니다(26:51). 1 세대의 불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민족 형성)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맺음>

우리의 현실은 비극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삶의 낙관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의미를 실제로 찾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허무와 충동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나와 함께 가시는 주님을 말씀에서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행동보다 더욱 큰 성취와 영광의 미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풍성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광야에서 예측불허였던 곤경이 일어나자 1 세대의 반응과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놓치고 산 것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2. 나의 인생 또는 오늘 날 우리 현실은 어떤 면에서 광야와 같습니까? 이 광야에서 소망을 갖는 길은 무엇일까요? 또한 광야 같은 삶에서 찾고 발견하여 힘을 얻게 된 낙관의 길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3. 민수기를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할 것이 있다면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